

민생경제점검회의의 모두발언(2.6)

- 지금부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최근 우리경제는 어느 때보다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,
 -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도 주춤하는 등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.
-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
 -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“1/4분기 민생·경제 대응플랜”을 실행에 옮기겠습니다.
 - 물가, 일자리, 주거, 서민금융 등 핵심민생 분야별로 현장을 찾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,
 -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, 정책금융 확대, 한시적 규제 유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습니다.
 - 영세 소상공인 점포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중소기업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
 - 민생핵심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정협의회를 통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.
- 오늘은 민생 제1과제인 물가 상황을 점검합니다.
 - 1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와 일부 농수산물 가격 오름세로 5개월 만에 2%대를 기록했으며,
 - 당분간 국제유가 변동성, 기후영향 등이 물가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

□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

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- 먼저, 2월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4월말까지 2개월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.

※ 유류세 인하율 : (휘발유)△15% (경유·LPG)△23%

-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

2~3월중 농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, 과일·채소 할당관세 물량 37만톤도 신속히 도입하겠습니다.

- 가격이 높은 배추·무는 정부 가용물량 등을 활용해 매일 200톤 이상을 도매시장에 공급하겠습니다.

- 3월 동행축제를 계기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¹⁾를 실시해 소비자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.

- 아울러, 석유류와 김 등 생활밀접품목에 대해 매주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사재기·담합 등 불법 유통행위를 엄단하는 등

- 모든 부처가 상시적으로 현장에 나가 물가 불안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즉각 조치하겠습니다.

□ 이어서, 안건과 관련하여 농식품부 장관, 해수부 장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. (농식품부 장관, 해수부 장관 모두발언)

□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

1) 환급행사 기간 : 3.17~28일

농식품부 장관 모두발언

- 설대책 추진에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농식품 물가는 안정세입니다. 생산자, 유통업체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 - 현재 축산물과 사과 등 주요 과일은 공급량이 충분하고, 시설 채소와 과채류는 전년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
 - 다만, 고온·열과 피해로 배추·무·배 등의 가격이 높고, 카카오·원두 등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초콜릿, 커피 등의 가격 강세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.
- 농식품부는 국내산 생육관리에 만전을 기하되, 공급이 부족한 농산물은 할인지원, 수입 확대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.
 - 배추, 무, 양배추, 당근 등 생산량이 감소한 노지채소류는 할당 관세 등을 활용하여 민간의 수입산 공급을 확대하고,
 - 특히 배추·무는 할인지원을 연장하고, 수입 물량을 도매시장 등에 지속 공급할 것이며, 무는 비축물량을 소비지 시장에 직공급하여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습니다.
 - 더불어 농협,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으로 국민들께서 배추·무를 대체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봄동배추, 열무 등의 소비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.
- 또한 공급망 불안, 환율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기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
 - 특히 식품 원자재 할당관세 확대를 추진하고, 업계와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물가불안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 - 마지막으로 생산자, 소비자, 식품업계가 농축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유통구조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.

해수부 장관 모두발언

- ☐ 지난 주까지 생산자단체·유통업체와 함께 역대 최대 설 할인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. 설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갈치·고등어 등 주요어종 가격은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었습니다.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 관계자분들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.
 - ☐ 고등어·갈치 등 주요 어종 가격은 안정적이나, 아직까지 국민들께서 즐겨 드시는 김 가격이 다소 높습니다. 최근 물김 생산이 원활하여 산지 가격 및 도매가격은 점차 하락하고 있으나,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속도가 다소 더딘 상황입니다.
 - ☐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급·가격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 유통질서 교란행위 발생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어제부터 기재부·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 현장점검 및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, 할인행사 및 업제 자금지원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.
 - ☐ 그리고 지속적인 물가 안정을 위해 12일부터 3월 2일까지 최대 50% 할인행사를 진행 예정이며, 3월부터는 ‘찾아가는 직거래장터*’도 운영하며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하고 어업인과의 상생을 도모할 예정입니다.
- * 유통업체 오프라인 매장 미입점 지역 중심으로 생산자단체가 지역특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사 진행
- ☐ 앞으로도 수급·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국민들께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